

진료실에서 환자 호칭과 의사 복장 선호도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가정의학과

안성후 · 정지혜 · 진종원 · 김현철 · 김세중 · 최민규 · 노용균[†]

연구배경: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낮은 병원 환경과 의료진을 만나게 된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환자에게 의사의 호칭, 인사법, 복장 등의 태도는 의사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진료실에서 의사의 호칭, 인사법, 복장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와 의사의 행태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방법: 일개 대학병원에서 20대 이상의 외래 환자 394명과 5개 대학병원 전문의 16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였다. 설문을 통해 환자호칭, 초면/구면 인사법, 선호하는 진료 복장과 의사의 복장이나 태도가 의사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환자군과 의사군을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환자군은 의사가 'OOO님'(51.0%), 'OOO씨'(29.2%), '환자분'(16.2%), '선생님'(2.5%), 순으로 자신을 불러주길 원했다. 이에 반해 의사들은 호칭으로 '환자분'(39.2%), 'OOO님'(29.6%), 'OOO씨'(24.5%), '선생님'(1.2%) 순으로 환자를 부른다고 하여, 양군 간에 유의한 차이($P < 0.001$)를 보였다. 환자군과 의사군 모두에서 가장 선호하는 진료 복장은 흰 가운(환자 70.3% vs 의사 78.7%)이었으며, 환자군에서는 흰 가운 다음으로 컬러가운(25%)을 선호하였다. 가운 안 복장으로는 양 군 모두에서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가장 선호(환자 66.2% vs 의사 71.6%)하였다. 의사군에서 의사의 태도(23.1% vs 45.6%) 및 복장(49.7% vs 55.6%)이 환자가 의사를 신뢰하는 데 '많이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유의하게 높았다.

결론: 진료실에서 환자들은 'OOO님'으로 불리기 원하나 의사들은 '환자분'이라는 호칭을 많이 쓰고 있으며, 의사 복장은 양군에서 모두 흰 가운을 선호하였다. 의사의 태도나 복장이 의사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심 단어: 인사말, 호칭, 복장, 신뢰도

서 론

좋은 환자-의사 관계는 순응도를 높이고 치료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환자-의사 관계는 질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적절한 진단과 치료 등 의학적 방법으로 형성될 수도 있지만, 의사의 호칭, 인사법, 복장이나, 비언어적¹⁾ 혹은 언어적 면담기술 등을 통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²⁾ 건강문제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낮은 병원 환경과 의료진을 만나게 된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환자에게 의사의 인사말이나 복장, 환자를 부르는 호칭 등은 의사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에는 의대생³⁾이나 가정의학과 전공의⁴⁾를 대상으로 한 진료 면담 기술에 대한 연구가 소수 있었을 뿐 호칭에 관한 연구를 찾을 수 없었고, 진료실에서 의사의

복장이나 인사법에 관한 기존 연구는 드물거나 전무하였다. 호칭에 관한 최근 국외 연구로는 Makoul 등의 연구⁵⁾에서 환자들의 50.4%는 의사가 그들의 이름(first name)을 불러 주기를 원한다고 보고하였다(17.3%는 last name, 23.6%는 first and last name). 그러나 같은 연구에서 실제 일차 진료 장면을 비디오 분석한 결과, 진료시 의사의 50.4%가 환자의 이름을 전혀 부르지 않아 환자들이 원하는 것과 차이를 보였다. 국내의 진료방식이나 문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국내 환자들은 의사가 자신을 부를 때 어떤 호칭으로 불러주기를 바라는 지, 진료실에서 의사와 대면 시 어떻게 인사하기를 원하는 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의사를 신뢰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는 지 환기시켜주는 연구라 할 수 있다.

과거 연구들⁶⁻⁸⁾에서는 진료시 의사의 복장으로 흰 가운을 선호한다는 의견들이 우세를 보였지만, 최근 치과 병원, 한의원 등 물론 일부 병원에서도 색깔 있는 가운 등을 입고 환자를 진료하는 곳이 있어 진료 복장에 대한 선호도의 변화도 예상된다.

접수일: 2007년 8월 31일, 승인일: 2008년 4월 18일

[†]교신저자: 노용균

Tel: 02-829-5270, Fax: 02-829-5365

E-mail: rohyk@hanafos.com

본 연구는 환자를 응대하는 의사의 호칭, 인사말, 복장에 대한 환자 선호도와 의사 행태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방 법

1. 연구대상

서울시 일개 대학병원에서 20대 이상의 가정의학과 외래 환자 394명과 5개 대학병원 전문의 1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2. 연구방법

환자군의 나이, 성별, 학력, 소득수준, 1년간 병원방문 횟수, 증상 정도와 의사군의 나이, 성별, 진료과목 등을 조사하였다. 환자호칭, 초면/구면 인사법, 선호하는 진료 복장을 환자군과 의사군을 구분하여 파악하였고, 의사의 복장이나 태도가 의사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환자군과 의사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 version 12 한글판을 이용하여 카이 제곱 검정, Fisher의 정확 검정을 하였고, P값은 0.05이하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결 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징

외래 환자 394명은 남자 163명(41.4%), 여자 231명(58.6%)이었으며, 40대 이하는 69.9%였고, 최근 1년간 10회 이하로 병원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70.1%였다. 환자의 경우 모든 과에 걸쳐 조사하였으나 어떤 과를 진료 받으러 왔는지는 설문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의사 169명은 남자 131명(77.5%), 여자 38명(22.4%)이었으며, 40대 이하는 81.5%였고, 내과계열 48.5%, 외과계열 42.6%, 마취통증의학과 및 영상의학과 8.8%였다(표 1).

2. 환자 호칭과 초면 및 구면 인사법

환자군에서 의사가 자신을 불러줄 때 가장 원하는 호칭은 'OOO님'(51.0%)이었는데, 특히 40대 이하에서 (P=0.001), 남자에서(P<0.001) 더 선호하였다. 이에 비해 의사들은 호칭으로 '환자분'(38.5%)을 가장 선호하여, 양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2). 진료과목별로는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 군의 경우 53.3%에서 'OOO님'이라 부른다고 응답하여 내과계열 23.2% 및 외과계열 31.9%의 응답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23).

초면인사와 구면인사는 환자군과 의사군 모두에서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 n (%) | |
|--------------|-------------------|---------------|---------------|
| | | 환자 (n=394) | 의사 (n=169) |
| 성별 | 남성 | 163 (41.4) | 131 (77.5) |
| | 여성 | 231 (58.6) | 38 (22.4) |
| 연령(세) | 20-29 | 55 (14.0) | - |
| | 30-39 | 113 (28.7) | 76 (44.9) |
| | 40-49 | 107 (27.2) | 62 (36.6) |
| | 50-59 | 61 (15.5) | 26 (15.3) |
| | 60 이상 | 58 (14.7) | 5 (2.9) |
| 교육 | 중졸이하 | 43 (10.9) | - |
| | 고졸 | 161 (40.9) | - |
| | 대졸이상 | 190 (48.2) | - |
| 월수입(백만원) | 2< | 167 (42.4) | - |
| | 2-4 | 159 (40.4) | - |
| | >4 | 68 (17.3) | - |
| 최근1년간 | <5 | 167 (42.4) | - |
| 병원외래방문 횟수 | 5-10 | 109 (27.7) | - |
| | 11-15 | 56 (14.2) | - |
| | >16 | 61 (15.5) | - |
| 증상 중증도 | 전혀 불편하지 않다 | 154 (39.1) | - |
| | 불편하지 않지만 걱정스럽다 | 110 (27.9) | - |
| | 약간 불편하다 | 107 (27.2) | - |
| | 매우 불편하다 | 23 (5.8) | - |
| 진료과목 | 내과계열 | - | 82 (48.5) |
| | 외과계열 | - | 72 (42.6) |
| | 마취통증의학과 | - | 15 (8.8) |
| | 영상의학과 | - | - |

'앉은 채로 인사하며 맞이'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양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2). 환자군에서는 초면에 남자에서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하기를 더 원하였고(남 11.6% vs 여 5.65%, P=0.018), 여자에서는 인사말 없이 '그냥 앉아서 맞이'하기를 원하는 경향을 보였다(남 2.45% vs 여 6.95%, P=0.018). 구면의 경우는 나이, 성별 등에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초면, 구면에 상관없이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 의 경우,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일어서서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 33.3%, 외과계열 6.9%, 내과계열 4.9%, P=0.006).

3. 진료 복장

환자군과 의사군 모두에서 가장 선호하는 진료복장은 흰 가운이었다. 하지만 환자군에서 컬러가운을 더 선호하며, 의사군에서 평상복과 수술복을 더 선호하였다(표 3). 환자군의 모든 연령층에서 흰 가운을 선호하였으나, 40대

표 2. 환자에 대한 호칭 선호도와 초면 및 구면 인사법. n (%)

| | | 환자 (n=394) | 의사 (n=169) | P |
|------|------------------|---------------|---------------|--------------------|
| 호칭 | 환자분 | 64 (16.2) | 65 (38.5) | <0.001* |
| | ○○씨 | 115 (29.2) | 42 (24.9) | |
| | ○○님 | 201 (51.0) | 50 (29.6) | |
| | 선생님 | 10 (2.5) | 2 (1.2) | |
| | 사용안함 | 0 (0.0) | 1 (0.6) | |
| | 기타 | 4 (1.0) | 9 (5.3) | |
| 초면인사 | 그냥 앉아서 맞이한다 | 20 (5.1) | 14 (8.3) | 0.337 [†] |
| | 앉아서 인사하며 맞이한다 | 342 (86.8) | 141 (83.4) | |
| | 서서 인사하며 맞이한다 | 32 (8.1) | 14 (8.3) | |
| 구면인사 | 그냥 앉아서 맞이한다 | 14 (3.6) | 6 (3.6) | 0.944 [†] |
| | 앉아서 인사하며 맞이한다 | 339 (86.0) | 147 (87.0) | |
| | 서서 인사하며 맞이한다 | 41 (10.4) | 16 (7.9) | |
| | 서서 인사하며 맞이한다 | 41 (10.4) | 16 (7.9) | |

*Fisher의 정확 검정, [†]카이제곱검정.

이하에서 컬러가운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30.9% vs 10.0%, P=0.001).

가운 안 복장으로서는 양 군 모두에서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선호하였으나, 의사군에서 수술복을, 환자군에서는 평상복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환자군은 고령(P=0.025), 남성(P=0.009)에서 각각 젊은 연령, 여성에 비해 가운 안 복장으로 ‘평상복’보다는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유의하게 더 선호하였다. 의사군도 역시 고령(P=0.031), 남성(P=0.000)에서 ‘평상복’보다는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유의하게 더 선호하였다.

4. 의사를 신뢰하는 데 복장과 태도의 영향

환자군보다는 의사군에서 복장 및 태도가 의사를 신뢰하는 데 ‘많이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유의하게 높았다(표 4). 환자군과 의사군 모두 고령일수록 복장이 의사를 신뢰하는데 ‘많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환자 P=0.025, 의사 P=0.004). 의사군에서는 고령일수록 태도가 의사를 신뢰하는데 ‘많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P=0.017). 남자에서 여자에 비해 복장이 ‘많이 영향을 준다’고 대답하였고(28.2% vs 19.5%, P=0.017), 남자에 비해 여자에서 태도가 ‘많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46.0% vs 52.4%, P=0.009).

표 3. 진료 복장과 가운 안에 입는 복장 선호도. n (%)

| | | 환자 (n=394) | 의사 (n=169) | P |
|--------|--------------|---------------|---------------|---------|
| 진료 복장 | 평상복 | 20 (5.1) | 24 (14.2) | <0.001* |
| | 컬러가운 | 97 (24.6) | 1 (0.6) | |
| | 수술복 | 0 (0.0) | 11 (6.5) | |
| | 흰 가운 | 277 (70.3) | 133 (78.7) | |
| 가운안 복장 | 평상복 | 118 (29.9) | 35 (20.7) | 0.020* |
| | 와이셔츠와 넥타이 | 261 (66.2) | 121 (71.6) | |
| | 수술복 | 15 (3.8) | 13 (7.7) | |

*카이제곱검정.

표 4. 복장과 태도가 의사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n (%)

| | | 환자 (n=394) | 의사 (n=169) | P |
|----|------------------|---------------|---------------|---------|
| 복장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60 (15.2) | 2 (1.2) | <0.001* |
| | 조금 영향을 준다 | 243 (61.7) | 90 (53.3) | |
| | 많이 영향을 준다 | 91 (23.1) | 77 (45.6) | |
| 태도 |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 24 (6.1) | 1 (0.6) | 0.012* |
| | 조금 영향을 준다 | 174 (44.2) | 74 (43.8) | |
| | 많이 영향을 준다 | 196 (49.7) | 94 (55.6) | |

*카이제곱검정.

고 찰

환자군에서 의사가 자신을 불러줄 때 가장 원하는 호칭은 ‘○○님’(51.0%)이었는데, 특히 40대 이하에서, 남자에서 더 선호하였다. 이에 비해 의사들은 호칭으로 ‘환자분’(39.2%)을 가장 선호하여, 양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에게 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0.6% (1/169)에 불과하여, 실제 진료과정을 비디오 분석한 Makoul 등의 연구⁵⁾의 50.4%에 비해 적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설문조사로 직접 진료행태를 관찰한 것이 아니므로 낮게 측정된 것일 수 있다. 실제로는 환자의 이름 등 호칭을 사용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진료는 가능하며, 주위에서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진료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진료문화는 국내와 달리 환자에 대한 호칭이 다양하지 않아 주로 이름(first name), 성(last name), 성을 포

함한 이름(first & last name)으로 구분하여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를 연구하였다.^{5,9)}

국내에만 있는 형식이겠지만 본 연구에서 환자들이 'OOO님'으로 가장 불리고 싶다고 응답한 것은 의사에게 존중받고 싶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최근 서비스업종은 물론 관공서 등의 고객 응대 문화의 변화와 관련하여 환자들의 의료에 대한 인식이 전통적인 진료에서 서비스 차원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초면인사와 구면인사는 환자군과 의사군 모두에서 '얹은 채로 인사하며 맞이'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였고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것은 진료실에서 의사가 환자를 기다리는 형식으로 진료하는 우리나라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구중 환자의 78.1%는 의사와 악수하기를 원한다는 연구결과⁹⁾도 있었는데, 이는 국내 진료 상황과 달리, 미국에서는 의사가 진료실로 들어가 환자를 만나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에게 자신의 이름을 소개하며 서로 악수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환자군에서는 초면에 남자에서 의사가 자리에서 '일어서서 인사'하기를 더 원하였고, 여자에서는 인사말 없이 '그냥 앉아서 맞이'하기를 원하여, 성별 간의 선호하는 인사법의 차이를 보였다. 초면, 구면에 상관없이 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와 의과대학의 경우, 다른 진료과목(내과 및 외과계열)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일어서서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 외래 진료 특성상 환자를 침상에 앉히거나 눕히면서 진료를 시작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한다.

환자군과 의사군 모두에서 가장 선호하는 진료복장은 흰 가운으로, 기존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지만, 환자군 24.6%에서, 특히 40대 이하 환자에서 컬러가운을 선호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 의사군은 0.6%만이 컬러가운을 선호하였는데, 이것은 환자들에게 딱딱하고 위엄 있는 모습보다는 부드러운 인상을 주려고 컬러가운을 입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응답결과라 생각한다. 정한 등¹⁰⁾이 정신과 환자와 비정신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평상복을 선호하는 이유로 정신과 환자들은 평상복이 주는 긴장감의 감소를 이유로 꼽았는데, 이것은 흰 가운보다 부드럽고 친근한 옷차림의 의사를 원하는 환자들의 요구를 나타내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 컬러가운을 선호한 환자가 거의 1/4이 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가운 안 복장으로는 양 군 모두에서 '와이셔츠와 넥타이'를 선호하였다. 이 결과는 소아치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위유민 등¹¹⁾의 연구와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한 김성택 등¹²⁾의 연구, Rey 등¹³⁾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

아직까지는 전통적인 흰 가운과 와이셔츠, 넥타이 차림이 의사와 환자 모두에서 선호하는 복장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환자군에 비해 의사군에서 복장이나 태도가 의사를 신뢰하는 데 '많이 영향을 준다'고 대답한 결과는 의사들이 환자들에 비해 전문직으로서 격식을 중요시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환자군에서도 84.8%에서는 복장이, 93.9%에서는 태도가 의사 신뢰도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여, 복장이나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김성택 등¹²⁾의 연구에서 흰 가운을 입어야 하는 이유로 신뢰감(환자군 58.5%/의료진군 71.4%)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은 복장이 의사를 신뢰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와 동일하며, 흰 가운이 의사를 대표하는 복장이라는 생각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Ikusaka 등¹⁴⁾의 연구에서도 의사가 흰 가운을 입어야 하는 이유는 '깔끔함', '신뢰감', '알아보기 쉽다'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Rehman 등¹⁵⁾은 내과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환자들은 professional dress를 입은 의사에게 자신의 사회적, 성적, 정신적 문제를 공유하려는 의지가 더욱 생긴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의사를 신뢰하는 데 복장이 중요하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환자군의 대상을 일개 대학병원 환자로 하여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의사군의 대상을 대학병원 의사로 하였으며 진료현장 전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둘째, 의사군의 진료행태를 비디오 분석 등을 통한 관찰연구가 아니라 설문으로 조사하여, 실제 행태와는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설문대상 병원에 컬러가운 자체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보기 항목에 컬러가운이라 응답한 의사는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자 의사의 경우 가운 안 복장으로 평상복 75%, 와이셔츠와 넥타이 16.7%로 응답하였으며 이는 보기항목에 정장을 표시하는 란이 따로 없어서 그렇게 선택한 것으로 생각되며, 여의사의 정장이라는 범주가 비록 모호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설문 방식으로 인해 결과해석에 혼란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호칭이나 초면, 구면 인사법에 대한 연구가 처음으로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실제 진료행태를 관찰을 통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ABSTRACTS

Preferences for Addressing Title to Patients and Physicians' Attire in a Medical Office

Seong Hoo Ahn, M.D., Ji Hye Jung, M.D., Jong Won Jin, M.D., Hyun Chul Kim, M.D., Se Jung Kim, M.D., Min Kyu Choi, M.D., M.P.H., Yong Kyun Roh, M.D., Ph.D.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Kangnam Sacred Heart Hospital, Hallym University, Seoul, Korea

Background: Most patients feel uneasy about visiting a clinic and thus the trust on their physicians can be affected by the physicians' attire, attitude and greeting. We ai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between patients' and physicians' preferences to attires and greetings in clinics.

Methods: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394 outpatients in a university hospital and on 169 doctors from five university hospitals. We questioned to the outpatients about their preference for physicians' dress style, how to address them and the method of greeting. We also questioned to the doctors about their own attire, attitude and etiquette.

Results: The patients preferred to be called 'OOO Nim' (54.0%), 'OOO Ssi' (29.2%), 'Hwanjabun' (16.2%) and 'Sunsaengnim' (2.5%). However, the physicians were used to calling patients 'Hwanjabun' (39.2%), 'OOO Nim' (29.6%), 'OOO Ssi' (24.5%) and 'Sunsaengnim' (1.2%) ($P < 0.001$). Both the patients and the physicians preferred physicians' to wear white-gown (70.3% vs 78.7%) in a medical office. Inside the gown, a shirt and a necktie (66.2% vs 71.6%) were favored in both groups. Compared to the patients, the physicians thought that their attitude (23.1% vs 45.6%) and their attire (49.7% vs 55.6%) had a great effect on their professionalism.

Conclusion: We found that the patients wanted to be called 'OOO Nim', but 'Hwanjabun' was most commonly used by the physicians. Both the patients and the physicians preferred white-gown. We also found that the physicians' attire and attitude were strongly associated with their professionalism. (J Korean Acad Fam Med 2008;29:349-353)

Key words: greeting, attitude, address, attire

참 고 문 헌

1. Zoppi K, Epstein RM. Is communication a skill? Communication behaviors and being in relation. *Fam Med* 2002;34(5): 319-24.
2. McKinstry B, Wang JX. Putting on style: what patients think of the way their doctor dresses. *Br J Gen Pract* 1991;41(348): 275-8.
3. 이재열, 전은석, 박훈기, 이정권. 의과대학생의 환자면담에서 관찰된 면담 기술. *가정의학회지* 2000;21(4):471-7.
4. 박일환. 가정의학과 전공의의 진료실 면담의 대화 분석. *가정의학회지* 2003;24(7):612-9.
5. Makoul G, Zick A, Green M. An evidence-based perspective on greetings in medical encounters. *Arch Intern Med* 2007; 167(11):1172-6.
6. McNaughton-Filion L, Chen JS, Norton PG. The physician's appearance. *Fam Med* 1991;23(3):208-11.
7. Dunn JJ, Lee TH, Percelay JM, Fitz JG, Goldman L. Patient and house officer attitudes on physician attire and etiquette. *JAMA* 1987;257(1):65-8.
8. 정연희, 김석범, 강복수. 의사와 간호사의 복장에 대한 의사, 간호사 및 환자의 견해. *영남의대학술지* 1996;13(2): 324-45.
9. Gillette RD, Filak A, Thorne C. First name or last name: which do patients prefer? *J Am Board Fam Pract* 1992;5(5): 517-22.
10. 정 환, 이무석. 의사 복장에 대한 환자의 태도. *전남의대학술지* 2000;36(3):245-53.
11. 위유민, 이창섭, 이상호. 소아환자의 치과 의사 복장에 대한 선호도 연구. *대한소아치과학회지* 2002;29(2):168-79.
12. 김성택, 김미란, 김우정, 이승철, 서길준, 신상도 등. 응급센터에서의 의사복장 및 외형에 대한 환자 및 의료진의 선호도. *대한응급의학회지* 2005;16(2):254-65.
13. Gonzalez Del Rey JA, Paul RI. Preferences of parents for pediatric emergency physicians' attire. *Pediatr Emerg Care* 1995;11(6):361-4.
14. Ikusaka M, Kamegai M, Sunaga T, Narita N, Kobayashi H, Yonenami K, et al. Patients' attitude toward consultations by a physician without a white coat in Japan. *Intern Med* 1999; 38(7):533-6.
15. Rehman SU, Nietert PJ, Cope DW, Kilpatrick AO. What to wear today? Effect of doctor's attire on the trust and confidence of patients. *Am J Med* 2005;118(11):1279-86.